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의 한 장면.

KFN과 함께라면 불금도 주말도 '순삭'
'비욘드 유토피아' 등 국내외 명작 24~26일 방영

국내 유일의 국방·안보 전문채널 KFN TV가 이번 주말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국내외 명작을 엄선한 'KFN 시네마'를 방영한다.

24일 밤 11시에는 열악한 북한 인권 실태를 고발한 탈북 인권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2024)가 전파를 탄다. 2023년 선댄스영화제 관객상 수상과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다큐멘터리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르는 등 국제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던 작품이다. 북한에 남은 아들의 생사에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탈북 방송인 이소연 씨의 사연, 오직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난 탈북자들과 그들을 돕는 김성은 목사의 모습이 큰 감동을 전한다.

25일 밤 10시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공군 B-17 플라이нг 포트리스 폭격기 부대 소속으로 폭격 임무를 맡은 '멤피스 벨' 조종사들의 실화를 그린 '멤피스 벨'(1991)이 방영된다. 독일에 점령당한 유럽 전역에서 용감하게 싸우며 임무를 수행한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그려진다.

26일 밤 10시에는 잠에서 깬 덩커버 요원이 잠수함을 타고 미 중앙정보국(CIA) 블랙사이트에 갇힌 자신을 발견하는 내용의 액션·스릴러 '블랙 워터'(2018)가 시청자를 찾아간다. 스웨덴 출신 배우 돌프 룬드그렌과 '액션 스타' 장 클로드 반담이 호흡을 맞췄다.

KFN TV는 KT 지니TV(IPTV) 101번, 또 다른 IPTV인 SK브로드밴드 B TV 263번, LG유플러스 TV 244번은 물론 위성TV 스카이라이프 163번 및 전국 케이블방송, 'KFN'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노성수 기자

귀로 듣는 '라이온 킹'...영화 명성 그대로
개봉 30주년 기념 공식 라이선스 '라이브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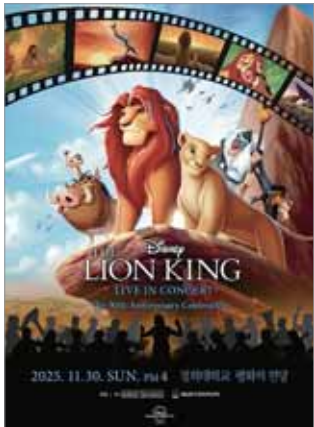
전 세계에서 사랑받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명작 '라이온 킹(The Lion King)'의 감동을 음악으로 느끼는 무대가 열린다.

다음 달 30일 오후 4시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개최되는 '라이온 킹 라이브 인 콘서트'는 라이온 킹 개봉 30주년을 맞아 디즈니 콘서트 제작진이 직접 제작한 공식 라이선스 공연이다.

관객들은 대형 스크린으로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을 감상하면서 100여 명의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선사하는 현장감 넘치는 사운드를 들으며 영화음악의 감동을 즐길 수 있다.

1994년 처음 개봉한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은 주인공 삼바가 아버지 무파사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로,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아 왔다. 엘턴 존, 팀 라이스, 한스 짐머, 레보 M 등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이 음악작업에 참여했고, 제6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악상과 주제가상 2개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공연 예매는 티켓링크 홈페이지(www.ticketlink.co.kr), 놀티켓(nol.interpark.com)에서 하면 된다. 노성수 기자



'라이온 킹 라이브 인 콘서트' 포스터.

세대를 뛰어넘는 명작의 감동

가을, 예술이 흐른다

국적 초월하는 오페라의 향연



정명훈과 원코리아오케스트라의 합창 공연 모습. 사진=롯데문화재단

낙엽 물들듯...마음에 스미는 하모니들
서울시합창단·원코리아오케스트라 합창 무대

깊어 가는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합창 공연이 잇따라 개최된다.

먼저 서울시합창단은 오는 30·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2번째 명작 시리즈 '낙엽 위에 흐르는 멜로디'를 열어 관객에게 가을의 울림을 선사한다.

객원 지휘자 김철의 섬세한 해석으로 북유럽의 청명함부터 한국의 서정미, 오페라의 장엄함까지 아우르는 합창 명곡들을 들려준다.

1부는 청명한 북유럽의 자연과 신비로운 정서를 담은 합창으로 막을 올린다. 노르웨이 작곡가 올라 아일로의 '이제 해가 지고'를 시작으로 스웨덴 작곡가 벵트 올렌이 편곡한 '어부를 기다리는 여인들의 노래', 올라 아일로의 대곡 '꿈을 엮는 자' 등이 신비로운 북유럽 감성을 선사한다.

2부에선 한국의 서정미와 오페라의 장엄한 감정의 깊이를 담은 작품이 이어진다. 윤동주의 시에 작곡가 이용주가 곡을 붙인 '별 헤는 밤'은 가을밤의 별을 헤아리듯 서정적인 합창 선율이 사색과 성찰의 순간을 선사한다. 도중환 시인의 시에 작곡가 최정연이 곡을 붙인 '바람이 오면'은 해금과 클라리넷의 조화 속에 합창이 더해져 감동을 전한다.

R석 4만 원, S석 3만 원. 예매는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www.sejongpac.or.kr) 또는 전화(02-399-1000)로 하면 된다.

이탈리아의 오페라극장 라스칼라의 음악감독인 지휘자 정명훈도 국내 주요 교향악단 전·현직 단원과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출신 연주자들이 참여하는 원코리아오케스트라와 고국에서 합창 무대에 오른다.

다음 달 19일 오후 7시30분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베토벤 합창'은 정명훈이 음악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전하는 자리다.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합창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형제애와 평화를 노래하는 작품으로, 정명훈이 애정을 담아 해석해 온 레퍼토리 중 하나다. 그는 이 곡을 두고 "메시지는 형제애이며 음악으로 한마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공연에서도 그는 웅장하지만 따뜻하고, 장엄하면서도 절제된 숭고한 메시지를 무대에서 구현할 예정이다. 소프라노 박소영,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테너 황준호, 바리톤 사무엘 윤, 국립합창단, 안양시립합창단이 함께 무대를 완성한다.

R석 20만 원, S석 15만 원, A석 11만 원, B석 7만 원. 예매는 롯데콘서트홀 홈페이지(www.lotteconcerthall.com) 또는 전화(1544-7744)로 하면 된다. 노성수 기자·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합창단객원 지휘자 김철. 사진=세종문화회관